협업을 도모하고 소통을 이끌어내는 사람

졸업 프로젝트로 저전력 Phase-Locked Loop(PLL)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sub-block을 맡아 설계하고 난 후 통합하여 2mA 이하의 저전력으로 2.4GHz에서 안정적인 Lock을 유지하는 하나의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였습니다.

처음 각 block들을 통합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전류 소비량이 이전보다 15%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 하였지만 시뮬레이션 중에 생긴 설계 변경 이력이 남아있지 않아 반나절을 그 원인을 추적하는 데에 써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추적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는 노션을 활용한 온라인 협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이 설계와 시뮬레이션 중 발생하는 변경 이력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업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독려하며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기록된 과정과 결과물은 매주 있었던 교수님과의 랩미팅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이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초기에는 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에 이를 채우기 위해 PLL과 관련된 강의 영상과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끌어냈습니다. 버자드 라바지 저자의 PLL 교재의 파트를 나누어 매주 공부한 후 팀원들끼리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 모두가 자신이 맡은 block 뿐만 아니라 과제의 전체적인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술적 역량만큼 협업을 이끌어내고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팀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업 방법을 최적화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협업을 이끌어내며 팀과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